

보도시점 2023. 8. 2.(수) 14:00 배포 2023. 8. 2.(수)

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 2024년도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 금년 대비 대폭 상향
-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연간 3만톤)의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하였다.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에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원을 투입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 공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액화수소 공급에 따라 액화수소 충전소 조기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소차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4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을 금년 700대에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국내 버스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의 보조사업 물량은 수소버스 보급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등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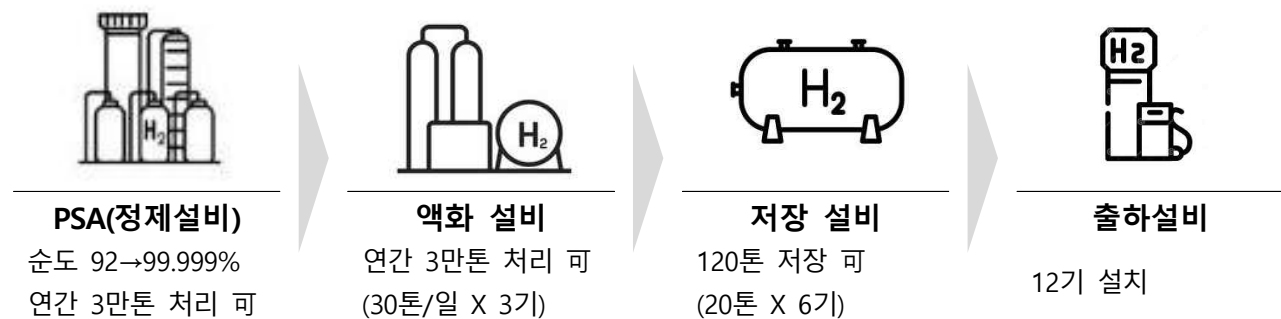
붙임 :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전태용 (044-201-6892)



□ 시설 개요

- (위치)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33(원창동) (1.5만평)
- (투자비) 약 6,000억원 규모
 - 수소 정제 설비, 수소 액화 설비
 - 수소 저장설비, 액화수소 출하설비 등
- (공정 개요)



□ 현장 사진('23.6월말 기준, 공정률 98.95%)

